

강진 병영에서 만나는 하멜이야기 '하멜의 장소' 문 열다

6월 20일까지, 하멜촌 맥주·커피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강진군이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로컬브랜드 사업'을 강진군 병영면에서 추진하며, '문화를 창조하고 마을을 살리는 신병영상인'이라는 방향 아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하멜의 장소(병영에서 만나는 향)'는 하멜촌 브랜드관으로 병영면 하멜촌의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하멜촌맥주와 하멜촌커피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전달하는 브랜드관이다.

체험형 홍보 거점으로,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목표로 기획됐다. 단순 판매를 넘어 제품 홍보 및 시음을 통해 방문객이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 특징이다.

팝업스토어 공간은 방문객 동선과 체험 흐름을 고려해 ▲맥주 원료 체험 ▲하멜촌맥주+코리안 화이트 선물세트 구성 ▲브랜드·제품 소개(스토리) ▲맥주와 커피 시음·체험 ▲구매·상담 ▲남도의 맛, 술로 건다' 연계 콘텐츠로 구성했다. 특히 '남도의 맛, 술로 건다' 콘텐츠를 통해 남도 주류 소개를 함께 담았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팝업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달의 맥주 팝업은 하멜양조장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브라운 에일'을 중심으로 맥주의 콘셉트와 맛의 키워드를 소개했다. 맥주 진열 존을 만들어 이미지 시각적 전달과 간결한 설명 카드를 배치했다. 5·6월은 봄, 여름 계절과 어울리는 주



류 팝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멜의 장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화요일~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장소는 강진군 병영면 병영남문길 40이다.

강진군은 이번 공간 조성이 로컬브랜딩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을 알리고, 병영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영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 보강해 '신병영상인' 로컬 브랜드가 지역 안팎에서 공감받는 생활·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숲 조성 본격 추진

염생식물 파종, 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 효과 기대

광양시는 지난 10일 광양읍 합강 하구와 진월면 선소리 섬진강 하구 일원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염생식물 파종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15일 광양시, 여수해양경찰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광양만 블루카본 조성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블루카본'은 갯벌과 염생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빨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협약 기관들은 광양만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블루카본 조성과 홍보 활동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4개 협약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파종에 앞서 대상지 주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오션' 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염생식물 파종 작업을 진행했다.

파종은 광양읍 합강 하구 7천 평과

진월면 선소리 섬진강 하구 3천 평 등 총 1만 평, 약 3만 3천㎡ 부지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해홍 50kg과 칠면초 50kg 등 총 100kg의 씨앗을 뿌리며 블루카본 연안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대규모 파종이 이뤄진 광양읍 합강 하구 일원은 광양시가 추진 중인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다. 이 사업은 멸종위기종 등 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7년 6월까지 약 19만 6,900㎡ 규모의 이 일대를 생물서식처와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염생식물 파종은 민·관·경이 협력해 광양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며 "인근 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기반을 다지고,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은 지난 12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대표 고두환)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보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창구를 다양화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기부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위기브'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서비스를 시작한 민간 플랫폼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지원해 왔다. 특히, 전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515억 원 가운데 약 235억 원을 모금하며 제도 정착과 민간 참여 확

보성군,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모금 계약 체결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로 고향사랑기부 참여 확대 기대

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브'가 보유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능, 유명인 협업 콘텐츠, 기부자 응대(CS) 시스템, 답례품 기획 및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며, 보성녹차, 벌교소맥 등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투자하고, 답례품 제공업체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플랫폼 '위기브' 운영사인 공감만세 관계자는 "위기브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이후의 모금 성과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특화된 민간 플랫폼임을 입증했다"라며 "보성군 담당 부서와 답례품 제공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차별화된 온라인 전략을 통해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윤기 기자

장성군이 12일 장성을 게이트볼경기장 인근에서 '구강건강버스 출발식'을 가졌다. 지역 주민들과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발을 축하했다.

'구강건강버스'는 치료 진료에 필요한 의자(유니트 체어), 구강 카메라, 틀니 세

장성군 "주민 건강 지키는 '구강건강버스' 출발합니다"
'통합 건강 솔루션' 제공하는 25인승 버스... 마을 방문해 주민 진료

척기 등 다양한 의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25인승 버스다. 지난해 농어촌계선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2억 4600만 원을 들여 마련했다.

버스를 찾은 주민이 △구강 △한방(침) △면역 향상 프로그램(아로마 테라피) △건강 상담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구강건강버스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종합적인 의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390-8344)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일 민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도입한 제정경로당(전대리)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창구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와 연계해 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

화순군,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어르신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교육 실시

됐다. 어르신들이 각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키오스크에 설치된 앱을 활용해 열차표 예매와 음식·커피 주문 방법 등을 안내했다.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병원 예약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찾아가는 민원창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광군,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 개발 추진

농업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영광군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소농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브랜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별 특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센터는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강소농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 개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3층 소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총 9명의 농업인이 참여한다.

첫 회차 교육은 3월 11일 개강했으며,

'브랜드 이해'를 주제로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교육 과정에서는 농가별 브랜드 제작을 지원하고, 상표 출원 절차도 함께 도울 예정이다. 또한 교육 종료 후에는 브랜드 평가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정재욱 소장은 "강소농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며 "브랜드 개발과 상표 출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농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